

나쁜 놈 잡는 '덜 나쁜 놈'...착한 놈보다 '더 멋진 놈'



새로운 악의 응징,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

'나쁜 놈들'이 판치는 세상, 차라리 '덜 나쁜 놈들'이 그나마 나은 것일까. 부당한 권력과 힘을 지닌 악(惡)을 상대하기에 선의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현실. 적당히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통쾌한 악의 물락을 보고 싶은 건 부당한 걸까. 현실과 떨어질 수 없는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으로 '덜 나쁜 놈들'이 뜨는 이유다. 그렇다고 악과 똑같이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노릇.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노력도 한다. 바야흐로 '덜 나쁜 놈들' 전성시대다.



'나쁜 데 입지 않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들이 정의구현의 그럴싸한 포장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SBS '갯속말' 이상윤, 영화 '원라인' 임시환, '내부자들' 이병헌, '더 킹' 조인성, '김과장' 남궁민(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 대표적이다. 사진제공 | SBS·NEW·내부자들문전사·우주필름·로그스필름

■그래도 나빠!

이종장부 김과장, 5년이하 징역 몰카영상 유포 신영주도 5년이하

'덜 나쁜 놈들'은 '더 나쁜 놈들'에 맞서고 이들을 응징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수단은 때로 불법적이다. 만일 이들이 TV와 스크린을 뚫고 나와 법정에 선다면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을 기준으로 이들의 행위를 판단했다. 재미로만 봐달라!

●드라마 '김과장' 김성룡 역 남궁민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종장부 작성

→**형법 제231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변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대전화 녹취를 약점으로 회유하며 압박

→**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드라마 '갯속말' 신영주(조연화) 역 이보영

술 취한 이상윤 모르게 영상카메라로 촬영해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타인 의사에 반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시키는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살인 누명 쓴 아버지 재판 관련 수사 기밀 유포

→**형법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친구 조연화 이름을 빌려 법무법인 변호사 비서로 입사

→**형법 제225조**, 공무원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10년 이하의 징역

●영화 '원라인' 민태리(민재) 역 임시환

대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신해 은행에서 사기로 대출을 받고 수수료 취득

→**형법 제347조**, 조직적 사기에 해당, 1억원 미만일 경우 1년6월~3년형, 5억원 미만은 2년~5년형. 주도적으로 계획,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양형 가중요소 상당 불법 대출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고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확 명령을 입력,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드라마 '김과장' 이어 '갯속말' 관심
절대악 잡는 덜 나쁜놈들의 스토리
영화 '원라인'·촬영 앞둔 '악질경찰'
'선 vs 악' 아닌 '악 vs 절대악' 더 공감

더 이상 늘 당하기만 하는 '착한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적어도 세상에 밀착된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는 그렇다. 절대악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선한 의지와 태도는 이제 중요치 않다. '더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덜 나쁜 놈들'이 각광받는 것도 '더 나쁜 놈들'의 절대적인 부조리가 큰 탓이다.

여기서 '덜 나쁜 놈들'과 '더 나쁜 놈들'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덜'과 '더'의 차이 말이다. 세상이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정의와 상식의 힘을 믿는지 여부일 것이다.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양심과 내면의 시선 그리고 분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청자는, 관객은 결국 또 다른 '권선징악'의 쾌감을 얻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덜 나쁜 놈들'이 뜬다

방송 내내 화제를 모으며 30일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 극중 김과장인 남궁민은 애초 '나쁜 놈'이었다. 지방 한 회사의 정리과장이지만 조직폭력배의 부정회계를 돕던

사기꾼. 이른바 형명 전문가다. 어느 날 더 나쁜 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들어가면서 각종 사건에 휘말리면서 의도치 않게 '의인'이 된다. 더 이상의 부조리는 참지 못하겠다는 거대 악과 맞서 싸우다보니 '정의의 화신'까지 됐다.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자가 함정에 빠져 나쁜 놈들과 손잡은 이도 있다. SBS 월화드라마 '갯속말'에서 정의감 넘치고 신념이 강한 판사 출신 이상윤은 한 순간 법과 양심을 저버린다. "성실한 악인"들이 추잡한 비리를 저질러도 눈감는다. 처음 시작이 어려웠을 뿐, 이후에는 쉽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 '더 나쁜 놈들'을 상대하기 위해 '덜 나쁜 놈'이 되어가는 과정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 방송을 앞두고 한창 캐스팅 작업 중인 케이브채널 OCN '나쁜 녀석들2'도 '덜 나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을 잡는 이야기다. 2014년 시즌1이 방송됐을 때 "기발하고 재밌다"는 호응으로 3년 만에 시즌2가 나오게 됐다. '더 나쁜 놈들'을 소탕하려고 모인 강력계 형사와 '덜 나쁜 놈들'이 주인공이다.

스크린에서 '덜 나쁜 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5년 영화 '내부자들'부터다. 지난해 '검사와전'과 '아수라'를 거쳐 올해 '더 킹', 현재 상영 중인 '원라인', 촬영을 앞둔 '악질경찰'로 그 분위기는 이어진다. 저마다 현실의 부조리를 바탕으로 두고 극적인 사건을 뒀ندا.

'덜 나쁜 놈들'은 완전무결한 영웅과는 거리

가 멀다. 오히려 어긋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는 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이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 나쁜 놈' 때문이다. 정경유착, 부패권력 등 거대악은 물론 부당한 '갑' 등 '더 나쁜 놈들'에 대응하고 맞서는 '덜 나쁜 놈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과 세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식상한 '권선징악'...이분법 탈피한 스토리의 진화

신선한 소재와 매력적인 캐릭터를 발굴하는 일은 이야기를 만드는 모든 제작진의 최대 과제다. 고난 끝에 선이 악을 이기는 권선징악의 이분법적 구도로는 더 이상 대중의 시선을 끌기 어렵다. 허구의 작품이라고 해도 현실과 맞닿은 리얼리티를 중요시 여기는 시선 속에서 '덜 나쁜 놈들'은 주목받고 있다.

임시환 주연의 '원라인'은 평범한 대학생이 사람들을 속여 대출받은 돈을 가로채는 이야기. 대출사기를 주도하는 주인공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더 극악무도한 악인이 등장하는 탓에 아이러니하게도 관객의 '응원'을 받는다. 이선균 주연의 '악질경찰'은 악당이나 다름없는 경찰이 더 악질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내용이다. 극의 무대가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인 사실 역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예고한다.

물론 '덜 나쁜 놈들'이 공감을 얻으려면 보면

●전통적인 전개 우려...사적 복수·응징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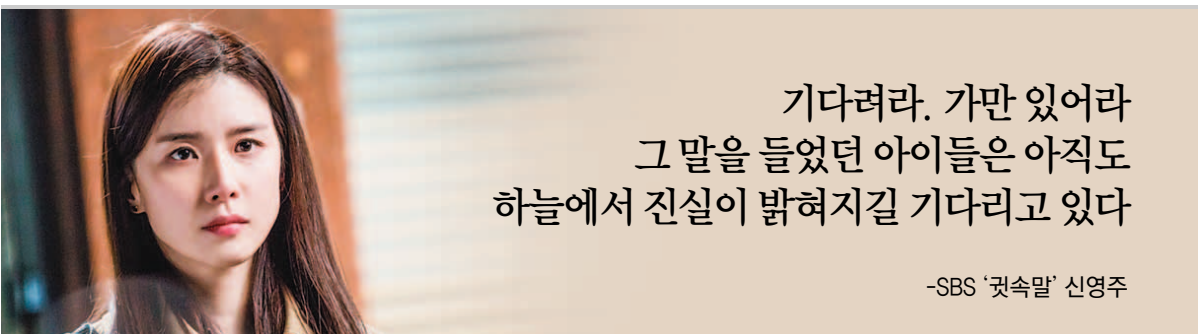
사실 '김과장'의 남궁민이 정의의 편에 서게 된 이유, '더 킹'의 조인성이나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협력해온 악의 세력과 대립하게 된 배경은 비슷하다. 상대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거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덜 나쁜 놈들'의 이야기는 대개 수동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특히 복수, 그 중에서도 사적 복수와 응징의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전개로 이어질 우려와 함께 각기 출발은 달라도 어쩔 수 없이 관에 박힌 결말로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부자들'의 애초 결말은 절대 악인 백윤식이 교도소 수감 이후에도 "우리나라 민족성은 원래 금방 끓고 금방 식는다"는 대사로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었다. 하지만 제작진은 '대중 정서'를 고려해 악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내용을 다시 촬영해 공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실제사건 당사자에 '한방' 날린 대사들



기다려라. 가만 있어라
그 말을 들었던 아이들은 아직도
하늘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다

-SBS '갯속말' 신영주



대중은
어차피
개·돼지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덜 나쁜 놈들'은 그 자체로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는 매개체다. 물론 표현방식은 각기 다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대사로 현실을 비추기도 하고, 은유의 화법으로 기시감을 주기도 한다. 때론 극단적인 설정으로 관심을 극대화한다.

●직접적인 '대사'

방송 2회 만에 주옥 같은 명대사로 시선을 모은 SBS '갯속말'. 요즘처럼 어렵고 답답한 시국에 시원한 '사이드'를 넘어 통쾌한 '핵주먹'을 한방 날린다. 대사가 겨냥한 듯한 실제 인물과 상황이 연상되는 건 자동반사. "쫄 쟈대?"라고 할 정도로 당사자를 뜨끔하게 만든다. "기

다려라. 가만 있어라. 그 말을 들었던 아이들은 아직도 하늘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다", "임시부정에 가담한 교수가 있다. 그 덕에 학과장이 됐다. 처음에 가담했던 사람이 또 공모를 하고, 주도를 한다"는 대사를 통해 실제 사건을 노골적으로 빚낸다.

영화 '내부자들'의 명대사는 신문사 논설주간 역을 맡은 백윤식의 입에서 나온다. "대중은 어차피 개, 돼지입니다"라는 말, 관객을 자극한 이 대사는 지난해 한 교육부 기획관의 입에서 실제 되풀이돼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덜 나쁜 놈' 이병헌은 이렇게 묻는다.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긴 한가?"

●현실인 듯, '기시감'

'더 킹'이 개봉한 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감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감사로 출발해 승승장구한 권력자인 그의 모습이 영화 주인공 정우성과 비슷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영화가 그런 사법권력의 비루한 민낯은 그간 검찰이 주도하거나 연루된 사건 및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기시감으로 530만명의 선택이 이어졌다.

KBS 2TV '김과장' 역시 최근 정국과 세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극중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TQ그룹의 실세 '도여락 3인방'은 얼핏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떠올리게 한다. 또 재무이사 서울 역의 준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

정수석을 모티브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인 '설정'

부조리한 세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작품도 있다. 5월 방송 예정인 MBC '파수꾼'은 범죄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모여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야기. 경찰과 검찰, 법으로는 절대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큰 테두리 속에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그림 예정이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는 '범법'들에게 "한 방 먹이겠다"고 제작진은 기획의도를 밝혔다. 최대치의 상상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대화해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정연·이해리 기자